

홍수예방시설이 426mm 폭우서 신안동 홍수 자초 '갑론을박'

광주시가 도심 홍수를 막기 위해 지은 예방 시설이 도리어 이번 426mm 기록적 폭우에서 물그릇 역할을 자초, 저지대 홍수 사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갑론을박이다.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설계 불량 등을 꼬집으며 탁상 행정이라고 지적, 시는 폭우 상황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침수 진행으로 인한 주민 오해라고 해명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종합건설본부(종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부터 임동 광주천 합류부까지 1.14km 구간에서 서방천 개수공사를 진행했다. 국·시비를 포함 129억9900만원(국비 4억원·시비 125억9900만원)이 투입됐다.

사업은 서방천 생태회복과 함께 여름철 폭우로 인해 불어날 염려가 있는 상황을 대비, 주변 주민들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종건은 해당 구간에 식생 옹벽을 쌓고 자연형낙차공 등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문제가 된 것은 일부 구간에 설치된 투명홍수방어벽이다.

종건은 서방천과 바로 맞닿아있는 곳인 북구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 250m 구간에 1.5m 높이 투명홍수방어벽을 세웠다. 사업 의도대로 서방천과 맞닿아있는 곳인 해당 구간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었지만, 이번 기록적 폭우 과정에서는 피해 전개 양상이 달랐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안동에서는 지난 19일 기준 277구가 침수 피해를 입고 40명이 임시대피소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대부분이 서암대로 100번길 주변 거주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번 폭우로 서방천이 범람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도심에서 고인 물이 저지대인 서암대로 100번길에 조성된 마을로 모여들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홍수방어벽이 세워진 탓에 물그릇 역할을 하면서 고인 물이 빠지지 않아 침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18일 광주 북구 신안동 서암대로 100번길 서방천 개수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투명홍수방어벽 주변이 전날 내린 폭우로 어지럽혀져 있다. 주민들은 주변 서방천 범람을 막고자 지어진 홍수방어벽이 물그릇 역할을 하면서 침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지난 17일 426mm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신안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뉴스

서방천 개수공사서 지어 올린 투명홍수 방어벽 물그릇 역할 하면서 배수 안돼 침수 피해 주장 피해 주민 "배수구 고작 4개, 전형적 탁상행정" 시 "기록적 폭우 동시다발 침수진행...주민 오해"

통상 폭우가 내리면 신안교 주변에서 바로 서방천으로 빗물이 빠지기 마련이지만, 홍수방어벽이 세워진 탓에 빗물이 서암대로 100번길을 타고 저지대인 마을로 고여버렸다고 설명했다.

고인 빗물이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수구가 있지만 고작 4개 뿐이고 이마저도 폭이 좁은데다 부유물에 막히기 쉬운 구조인 탓에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결국 서방천 건너편 마을을 잇는 보행교 주변이 고인 빗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주민 문모(51)씨는 "마을이 물에 잠기

는 동안 서방천은 잠잠했다. 결코 범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에 고인 물이 서방천으로 흘러넘쳤다. 홍수를 막겠다고 세운 벽이 홍수를 불러들였다"며 "마을은 저지대인데다 낙후된 곳이라 어르신들도 많이 산다. 적어도 안에서 고인 물을 바깥으로 쉽게 뺄 수 있도록 설계만 했더라도 이런 참사는 안났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주민 송모(72)씨도 "2020년에도 비가 올때만큼 왔지만 그때는 마당이 적시는 정도였지 집안으로 비가 들어다치지 않았다. 서방천이 넘치지 않고 침수와 연달은 적도 없었다"며 "배수구라고 뚫어놓

은 것도 비만 오면 떠다니는 부유물에 막히는데다 4개 뿐인데 저걸로 무슨 물을 빼내는 것이다. 이번 침수는 총체적 설계 불량의 인재다"고 성토했다.

종건은 주민들이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종건 관계자는 "이번 폭우로 영산강 수위가 올라가고 광주천 수위가 올라가며 서방천 수위도 함께 올라갔다. 모든 하천의 수위가 올라가다보니 서방천도 올라가 인접한 마을도 함께 침수가 진행된 상황이었다"며 "마을의 침수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방천의 유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안교 주변을 지나는 철교가 서방천 유속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고민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른 종건 관계자도 "이번 문제는 서방천의 물의 양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의 양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오권철 기자



동곡농협 진실의 종점은?



광전매일신문 상무이사 김준형

농협의 올바른 운영과 조합원 복지 신장을 위해 농협에서 조합장, 직원 및 임원들은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각자의 역할이 농협 운영과 조직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 의결기관의 정점에 위치로 조합장의 주요 역할은 기본적인 임무는 농협의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총회와 이사회 의장이 되며, 중요한 결정을 통 추하며,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조합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불법 행위나 문제를 조사하는 역할로, 감사 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방법, 결과,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이 포함하여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고서를 이사회와 조합장에 제출하고, 주요 발견 사항과 권고 사항을 설명해야 할 것이며,

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시정 조치 계획을 포함하여 감사

결과와 시정 조치 계획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여,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감사 결과 보고, 문제점 시정 조치를 통해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며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곡농협은 언론 언론에 보도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묵묵부답을 하고 있어, 감사들의 직권남용·결탁 은폐형 감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곡농협 조합원들은 언론 보도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고도 조합원들의 알 권리인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들을 무시한 감사들의 행동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특별감사 보고서를 우편으로 통보해 줄 것을 조합원들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동곡농협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언론사 및 기자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고발조치 하였으며, 조건 불성립으로 사건 중재 종결된 사실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임직원의 언론사 및 기자를 비방 하기 위한 거짓 증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언론사 및 기자를 명예훼손 하였고,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앞으로 일어날 언론사의 법적인 조치 사항들이 화두가 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중학생 대상 신산업분야 진로교육

광주시교육청은 중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맞춤형 직업교육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직업계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마련했다.

직업교육 관련 인프라가 갖춰진 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 스마트캡스와 광

주전자공업고, 전남공업고, 광주자연과학고 등 3개 거점학교에서 진행한다. 희망 학생은 7월, 10월, 12월 중 날짜를 정해 3~4 시간 상당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9~12일 진행된 첫 프로그램은 106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캡 퍼스, 광주전자공업고, 전남공업고 등 3곳에서 이뤄졌다. /염선호 기자

양동시장, 빗물공포... "삶의 전부" 못떠나

상인들 얼굴엔 근심 가득, 한숨 폭폭... 밤새 지켜

"40년 넘게 운영, 가게 내팽개치고 도저히 못가"

"40년 산 집이고 내 터전인데 놔두고 어딜 가겠소"

18일 오전 호남 최대 규모 대표 전통시장인 광주 서구 양동시장.

전날 426.4mm의 역대급 폭우가 온종일 쏟아지면서 광주천 북계사가 주변 시장 상인들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다.

상인들은 폭두새벽부터 비로 인해 더러

워진 상품을 일일이 물로 씻어내거나 급류에 휩쓸려 여기저기 널부러진 쓰레기를 청소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당장은 비가 그쳤지만 오후부터 다시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에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못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시장 곳곳에 범람과 역류에 대비해 쌓아놓은 수백개 모래주머니는 전날 광주천 범람 직전 긴박했던 상황을 연상케 했다.

전날 오후 4시께 양동시장 안팎 점포

100여곳과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장과 맞닿은 광주천 태평교 범람 우려로 대피령이 내려졌다.

상인 최영래(70)씨는 "매년 여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발 뺀고 잠 잘 수 없다. 어제도 대피령이 내려졌지만 40년 넘게 운영해온 내 가게를 내팽개치고 도저히 발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밤새 자리를 지켰다"고 한숨을 푹 쉬었다.

상가 내 지하창고에 물이 차올라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발을 동동 구르는 상인도 보였다.

45년간 천막장사를 해온 박영심(69·여)씨는 "내 삶 전부인데 어떻게 가게를 비울 수 있겠나. 저녁 내내 가슴 졸이며 있었다. 지하 창고에도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찼다. 무서워서 (창고까지) 갈 생각조차 안 난다. 물도 흔하야 빼내야 하는데 비가 더 온다고 하니 막막할 따름이다"고 토로했다.

마치 거짓말처럼 폭우와 폭염이 오락가

락하는 날씨에 손님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60대 상인 김모씨는 "7월 들어 2주 넘게 이어진 폭염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 끊겼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폭우까지 쏟아지니 한여름 장사는 다 한 것 같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루 벌어 하루 지내는 삶인데 더 이상 벌 힘조차 없다"고 푸념했다.

/전민규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